



사람이 만일 복을 짓거든
또다시 그것을 뒤집어 하라
그 마음에 기쁨이 깃드려니
마침내 복이 쌓여 깊어 오리라.
(法句經·약행품144절)

東大新聞

편집장	김진우	인사	이영환	지정	이영환
주필	김진우	발행	이영환	주최	이영환
편집부	김진우	발행처	이영환	발행일	이영환
편집장	김진우	발행처	이영환	발행일	이영환

제 1038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 1월1일 (월요일) 【1】

쓰러진 깃발 세워 새 생명의 종소리 따라

빛나는 부활의 땅으로

崔淳烈 (사범대 교수·시인)

자, 일어나서 쟁과리를 쳐라
태양은 다시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니
무너진 어깨마다 구리빛 힘줄 돌아나며
눈물에 젖은 프래카드는 힘차게 쫓겨가
내 사랑아 한반도여
거짓된 포옹을 풀고
창백한 지식의 입맞춤을
덜추어라 튼튼한 근육의 진실 속에
내일을 여는 백박은 힘차다
수만의 악도 물리치고
수만의 적도 쳐부실
우리의 주먹에 서린 용기를 보라
아직도 늑대와 여우는 손잡고 있는데
가련한 오누이는 절망의 숲을 헤맨다
초록의 생명은 칼날의 추위에 떨고
이 동면의 계절에
끓어오르는 우리의 분노, 우리의 노래로
자, 일어나서 복채를 잡아라
쓰러진 깃발 다시 세우고
흰 적삼 옷고름 휘날리며
위선의 빌당을 허물자
감미로운 순치의 사슬을 끊고
빛나는 부활의 땅, 내 조국아
우리 모두 어깨 걸고
이 어둡고 척박한 땅에
뜨거운 가슴을 대고 물어 보자
통일의 꽃송이는 얼마만지
병글고 있는가
민주의 신세벽은 어디만치 오고 있는가
아, 진실로 신명 지핀 붉은
언제 오는가, 앞서 나간 동지여
새 생명의 종소리를 따라
우리 모두 춤추며 나아가자



“민주여, 통일이여, <예술대 그림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대신문사

동대신문 기획광고 ①



“남산위의 저 소나무”

90년대의 첫 아침!

남산 소나무는
우리민족의 기상입니다.

우리 東國은 큰 광명-큰 지혜-큰 힘으로
좀더 멀리 보고
좀더 크게 보면서
정정당당한 걸음으로 겨레에 앞장서
세계와 역사의 바른 길을 걸으려 합니다.

東國은 오늘 다시금
개교100주년과 21세기를 향해
남산위의 소나무처럼
쭉쭉뻗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족해방의 그날까지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社說

민중선거로 90년대 출발하자

파국으로 치달은 총장선출 과정을 보며

예상된 파국이어서 놀라움도 덜한 것 같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처럼 총장선거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민주적 총장선거가 무산된 지금이나 그 이전을 막론하고 이번 12대 총장선거는 마치 한사람을 제우하기 위한 무덤에도 같았다. 교수들의 총장선거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나 이를 극복하지 못한 학생과 여타 주체들의 나약한 모습은 인물에서조차도 올바른 위상을 세우지 못한 채 결국 민주적 총장선거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가 무산된 데에는 먼저 제도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었다.

총장후보로서 걸려서유가 지적되었던 한 이지만 총장의 재출마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할 방안이 전혀 부재했다는 점, 총장선거에 관한 권한이 사실상 선관위에 모두 위임되고 기타 주체들의 규제력 있는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상식 밖의 일이었다. 따라서 공청회조차도 홍보활동이라는 미명으로도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인물에 대한 대안이 전혀 부재했다는 것이다. 부적격자에 대한 출마제거는 마땅한 것

이다. 하지만 어쨌든 치부어 저야할 총장선거라면 무조건 반대나 무산을 향한 투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태의 혁신을 위한 대안있는 투쟁이 되어야 했다.

이제는 디자인 교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선관위도 사실상 해산된 상태다. 계단에서는 한술 더 퍼서 교수회의 총장후보 선출을 인정하지 않을 전방이며 중진의 방식대로 임명할 것이라고도 한다.

총장선거 이전에 이미 네 후보가 사퇴했고 본회의 당사자였던 이종장은 차기총장후보와 계단이 사퇴해서 물러나기도 했다(동아일보 구랍 23일호)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판에서나 필요한 것」이라는 이종장의 말과 계단의 일방적 선출결정은 같은 맥락으로서 이종장의 사퇴표명에 대한 그 진의를 의심케 한다.

결국 총장선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처음의 사소한 잘못이 얼마나 큰 회생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동국 84년을 기념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인지도도 몰라낼 수 없음을 당연하다. 민중선거의 승리를 90년대를 시작한다.

또 다시 자행된 경찰의 학원난입

공권력의 불법적 학원침탈 분쇄돼야

대학사학은 교수·학생·직원 등 세 단의 각 주체들이 서로 다른 계급적 기반을 지니고 연구교육이라는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계 맺고 있는 전체사회의 구성체이다.

대학은 진리의 객관성을 의심하고 비판하며 그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항할 자유가 보장될 때만이 대학이 사회속에서 담담하는 창조적 기능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의 학원난입이 이제는 마치 상식화되어 버린 듯하다. 우리는 이미 경찰의 학원난입으로 인해 썩바니 된 여러 대학의 실상을 전해 듣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차에 구랍 22일 새벽에 자행된 본교에 대한 경찰난입은 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경악케 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피바다공원의 강제해산이 언제 1백여일도 안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 분노와 진의를 대안 없이 버려두고 고고 있다. 도대체 공권력이 학원침탈을 예사롭게 여기고 거기에서 이를 향의하는 교수들 발로 차며 폭행하는 반인륜적 작태가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는가?

경찰은 이번 난입에 대해 수배 중인 총학생회장등을 연행키위해 서두르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했던 학생들에게 의하면 피바

다공원과 화원병사위원회의에 업무집행방해죄도 추궁받았다고 한다. 이는 총장선출과정중 학생들의 참여를 불순한 행동으로 낙인찍으려는 의도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공과 결과적인 반학생력의 개입이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한차례 좌절된 바 있는 민주총장선출의 체계비를 무력화시키고자 작금의 사태가 벌어졌음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권력의 미명어래 동약은 또 한편의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교수·학생·직원 이 권력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 학사운영의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장선출의 과정상, 어용무능교수 문제, 학사행정, 학원침탈, 교과내용의 부실 등 많은 비민주적 요소들이 파생되어 있다. 경찰을 위시한 공권력 하의 학원침탈은 분쇄되어야 하며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지배계급의 반동적 지배구조 역시 타파되어야 한다.

대학의자유는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의 침탈도 막아내는 것이 그 시작이다. 학원자유수호를 위해서 부단하게 투쟁하는 일이어야 할 대학의 절대적 의무는 사명임을 밝혀둔다.

전씨 증언은 속죄이닌 당당한 '해명'

지난 12월 5일의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 4당총재가 '보수대야합·야합'의 성격과 합의한 5공청산 내용에 대하여 심한 진통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여권내부에서 인적정신의 경쟁으로 부각되었던 전두환씨의 증언과 정호용씨의 사퇴가 이루어짐으로써 청산해야할 5공비리의 내용을 축소하고 국민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려 들고 있다. 그동안 증언거부와 사퇴 거부로 고수해오던 전·정씨의 태도변화는 앞으로의 정국상황을 자신들에게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보려는 속입수에 불과하다는 여권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제도정정권의 5공청산의 합의가 '대야합'에 불과하다고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5공청산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근본목표가 물러져 갔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부패의 정치권사퇴나 증언된 사법처리만으로는 청산될 수 없는 5공유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5공유제란 '12·12군사혁명'에서 '5·17정국학살'을 거쳐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부패 현상까지의 경제관계, 정치지배관계에서의 역할, 수탈의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통해 최대한의 기득권 유지와 기존 지배구조의 '확대재생산'을 이루는 과정에서 폭압정치를 지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독점자본의 정치적 영향력도 우회적·합법적으로 관철되고, 89년도의 공안정국속에서는 정체가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6공의 집권 2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5공의 연장선상에 서있기 때문에 5공청산의 의의는 희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미 실현된

문화에서 거론된 수준정도이며 세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보고 진서 자신이 담면에 자신을 가졌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아마도 진서는 5공청산을 위해 그가 저지른 독점과 탐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정권이 공인한 자리에서 당당한 '해명'을 하는데 그치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延基榮 (법과대교수·민법)

전두환씨 증언과 정호용씨 사퇴는 5공청산의 시작이며, 앞으로 전개될 민주주의운동세력의 탄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광주학살의 현장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용씨의 사퇴와 전두환씨의 증언만하면 5공청산이 달성되는 것처럼 미화하는 것은 대국민 조작선전일 뿐이다.

5공에 저지른 학살과 부정부패의

구체적 청산방안과 민주화일정 밝혀야 보수대야합 따른 거센 비난 일 듯

총책임자인 전두환씨에 관한 여야 해산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국회광주추진위가 작성한 질문서의 내용과 증언방법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질문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국회청

에 서야 마땅하다. 6공은 6·29선언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하여 5공과의 단절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상대적인 내적 모순구조로 인해 좌

원회(국보위)와 5공헌법 발효후 국 해산에 따른 국가보위임법회의의 주도로 마련되었다. 임명되는 1980년 10월 29일에서 1981년 4월 5공의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기반

추총장 후보사퇴 새로운 변수로 등장 민중선출, 좌절 아닌 도약의 발판으로 승화돼야

동국83년 역사상 유례없는 전체 교수회에 의한 총장선출제도가 확 정돼 세인들의 관심을 끌더니 드디어 선거권이 깨지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학원사회의 의지는 전혀 없으며 자신과 자신의 인맥과 권력의 사리사욕에 신성한 동국의 재정과 학문을 마음대로 유용하며 동국을 유보했

는 조항이 있음은 틀어 위법이 아니라 하며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원 주체가 합의한 총장선출제도가 무산될까봐 공청회를 홍보활동으로 바꿔 운영하며 총장선거를 사수하려고 했던 학생들, 이종장이 후보로 등록하자 총장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타후보교수들의 결단력 있는 정당화 사퇴로 동국의 민주총장선출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이제 '민주총장 선출은 좌절되었 다는 기존의 비난들을 받고 새로운 상황에서 민주총장선출의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이종장이 후보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아직 행정상으로 처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앞으로 민주적 총장선출을 하는데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한번 좌초된 구랍10일의 총장선거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단, 끝내는 최고로까지 유유히 갔던 현총장의 후보출마는 결국 총장 선거를 전면무효화 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총장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는 구랍10일 개진 선거권에 이렇다할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해산해 버렸다.

무자격자라고 지칭된 추총장후보에서는 제단정관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행사기간에 기 소된 자'에서는 학교장은 제외된다

는 조항이 있음은 틀어 위법이 아니라 하며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원 주체가 합의한 총장선출제도가 무산될까봐 공청회를 홍보활동으로 바꿔 운영하며 총장선거를 사수하려고 했던 학생들, 이종장이 후보로 등록하자 총장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타후보교수들의 결단력 있는 정당화 사퇴로 동국의 민주총장선출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東國漫評

이쯤이면 자라면 5공 단결이냐?
5공 적결 - 5공 단결이냐!
정답을 보게!!
5공
정호용
5공
5공

1990 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후기 분할)

1. 모집구분 및 인원

캠퍼스	대학	계열	학과	모집 인원	
서울	포항공과대학교	인문	법학	16	
			정치외교학	16	
			경제학	16	
			경영학	16	
			행정학	16	
	이과대학	자연	물리학	16	
			화학	16	
			생물학	16	
			지구과학	16	
			공학	16	
울산	법과대학	인문	정치외교학	32	
			행정학	16	
			경제학	16	
			경영학	16	
			사과대학	인문	경제학
경영학	16				
행정학	16				
정치외교학	16				
경제학	16				
경상	경상대학교	인문	경제학	20	
			경영학	22	
			행정학	22	
			정치외교학	24	
			경제학	24	
부산	공과대학	자연	전기공학	16	
			기계공학	16	
			화학공학	16	
			건축공학	16	
			산업공학	16	
경주	법정대학	인문	법학	24	
			경제학	30	
			정치외교학	30	
			행정학	30	
			경영학	30	
포항	상경대학	인문	경제학	30	
			경영학	30	
			행정학	30	
			정치외교학	30	
			경제학	30	
합계				548	
				주간:21	5
				야간:4	
				계	138
				주간:26	5
야간:4	686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1989. 12. 29(금)~1990. 1. 6(토)
나. 접수: 1990. 1. 3(수)~1990. 1. 6(토) 오후5시까지

3.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가. 교부: 1) 서울·경주 캠퍼스
2) 교보문고, 종로서적, 동화서적(강남), 세종문고(롯데월드), 신촌문고(신촌로터리), 교민문고(천호동), 한가람문고(고송터미널) 등
나. 접수: 1) 서울캠퍼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2) 경주캠퍼스: 경주시 석장동 707
3) 캠퍼스 접수장구

4. 전형방법
계 별 학과교사 내 신 합 계
인문·자연 340점(70%) 145.7점(30%) 485.7점(100%)
※과목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택과목은 실업 및 제2외국어 과목중 택1한다.

5. 기타
가. 전기대학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나. 전기에 본대학을 응시하고 불합격된 자라 할지라도 원서는 다시 제출하여 안 된다.
다. 경주캠퍼스 지원자는 반드시 경주 캠퍼스에서 응시해야 한다.

※서울캠퍼스: 주소: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26번지
전화: 직통 (02)272-8723
교관 (02)267-8131~9, (02)267-8141~5
야간 (02)267-8145

※경주캠퍼스: 주소: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전화: 직통 (0561)43-1030
교관 (0561) 2-0131~6, (0561)43-1011~20
야간 (0561)43-1020

"전 강좌 단기완성" 대학방학특강!

중국어, 프랑스어, 독어, 영어회화, 일본어, 한국말, 중국말, 프랑스어, 독어, 영어회화, 일본어, 한국말, 중국말

중국어: 왕 필 명, 성 준 의, 회화 (초급·중급·고급) 300, 700, 900자故事·小(廣)劇 三百句彙編·語法·사사·무역반

프랑스어: M·Maillex, 프랑스어회화반, Mauger 1권·2권, 프랑스어강독·소설반, 유학대반(회화 및 듣기), "외국인과 내국인선생님 합동강좌"

독어: Fischer, Adison, 外國人會話班, 초급·중급·고급반, 유학대반(회화 및 듣기), "외국인과 내국인선생님 합동강좌"

영어회화: PACE미인회화, EEC생활영어, P·E 생활영어, Side by Side 생활영어, "최신 보충프린트 및 무료재" "Study Club 및 보충수업"

일본어: 日本人會話班, 다이스터·NHK참정, JLC日語·유티·고급, 日語(초급·중급·상급·고급) 考試日語·소설반·개인지도반, "Study Club 및 토요특강"

한국말: "종로특강" 合同강좌, 大專院진학반, 취업대비 종합강좌, 방송통신대영어(1~5) JLC日語·유학대반과정

총각화신업 (구)대일학원건물 2층~5층, 대표상담전화 732-8585

종로 외국어학원

추총장 후보 사퇴... "재단에 기대"

"교수회 직선 시기상조, 종전방식 임명 예상"

부정임학과 관련, 불구속 기소중인 본교 **李贊勳**총장이 구립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추진후보와 재단이사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李총장은 이 인터뷰에서 출마경쟁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의 결의와 李性徹총장스님의 간곡한 유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라고 밝힌 뒤 사퇴이유에 대해 "학교가 더이상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회에서 **李**총장의 사퇴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李**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임추진방식에 관해 "재단에서 종전 방식으로 임명될 것으로 본다"며 "재단은 교수회의 추경후보추진을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10일의 추경선거가 무산되자 재단이사들은 간담회를 구립19·20일 양일간 호텔 소피텔에서 서두에서 갖고 임시 이사회소

집행안등에 관해 논의했다. 재단측에서는 현재 이사회 소집권을 가진 **黃**재경이사가 부정임학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므로 공식적인 이사회 소집의 명명권자가 없는 점을 고려, 이번 2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황이사장 면회를 통해 서면 위임을 받든지, 이사들의 소집 요청서를 발부하여 본교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등 2가지 방안을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문교부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고 구립23일자로 문교부에 추경임기만료일인 오는 17일까지 승인내용을 회신해줄 것을 정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학원 재단장관 제34조에 의하면 "이사회 소집을 위해선 소집 일주일 전까지 소집권자(이사장)가 안건을 명시, 이사회에게 소집 통보를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이사회 소집이후의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회 직선 총장 가능성 희박

각주체의 최소한 참여마저 목살당해

제12대 추경선거는 교수직선에 의한 동국 역사상 조유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정임학 사건으로 재추경에 있는 **李**贊勳총장이 후보로 나섬으로써 선거의 도덕성 등이 제기되면서 각 주체간에 부정선거라는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자신사퇴하겠다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거부한 채 오히려 종단을 등에 업고 끝내 선거에 임하는 최대우위를 받으며 말했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에 안타깝게도 분명 예상됐던 필연적 연출일 수밖에 없었다.

(관련기사11면)

선거직전까지 4후보 사퇴 학생들 '독단적 선거 반대' 주장

후보자 자격여부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제12대 추경선거는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추경후보 선출을 위한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가 구립10일 당초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 늦은 오후3시10분경부터 총회 진행 정족수 1백11명을 약간 넘는 1백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도서관에서 열렸으나 이날까지 **李**贊勳(전학)후보 **申**國柱(정치외교학)후보 2인만이 최종후보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申후보가 선거장에 참석치 못하고 선거공명성을 내세워 추경후보로 경외로 나간 상태에서 비밀투표에 들어가려 하자 밖에서 선거투표를 주장하던 3백여 학생들이 오후4시15분경 "독단적 선거결사반대"를 외치며 회의를 강요했다.

앞서 학생대표 의사결정에서 총학생회장 **김정규**(사학4)군은 "법률적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李**贊勳후보의 출마승인은 이번 선거가 독단적 부정선거일수밖에

없다"고 일축하고 문교부 공문내용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8조 2항(국가공무원법준용), 국가공무원법 제73조 2항(직위해제), 동국학원 정관483조항(직위해제 및 해임)의 권을 들어 후보자 자격이 없는 사립을 후보로 승인한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러 교수님들의 정확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호소를 했으나 선관위원장 **徐**根(경향)교수는 이를 일축, 비밀투표로 선거를 강행시켰었다.

한편 이날 오전11시경 기호4번 **李**贊勳(영문학)후보는 "교수회를 통한후보선출의 결과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은 대학의 자율권 수호차원에서 재일차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했다.

또 **張**源宗(경제학)·**朱**宗桓(농업경제학)·**徐**相範(법학)후보는 구립8일 "무자격자가 추경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자체가 원천적으로는 무효"라며 사퇴했다.

입기 만료인 17일까지 선출여부 불투명 상태

'피바다공연' 관련 명목으로 구립 22일 새벽3시경 중부경찰서 소속 사복경찰의 학내무단 난입 및 31명의 학생연행사건을 둘러싸고 학교와의 연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어제는 불명의로 입성하여 죄없는 학생들을 잡아가더니 오늘은 학교로 학생들을 내쫓는 본단조국이 낯은 사생아 백골단이다... 구립22일 새벽 2시30분경 학생31명을 불법 연행한 사복경찰에 대해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경 구립대회를 가진후 종로앞에서 학원철명, 민중단합구단을 소리높여 외치며 분노하였다.

유속에서도 2백여명이 넘는 학생들의 참석하에 열렸던 이번 집회에서 학생들은 '공안정국하의 학원철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구속된 학생들이 점거농성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혐의도 조사를 받은 것은 학교 당국이 이번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당국의 공식해명을 즉각 요청했다.

파식경찰 구입 "70억" 22일 새벽 농성 학생 31명 무더기 연행

이번 사건은 구립22일 오전 2시30분경 중부서 소속 사복경찰 2백여명이 정문과 후문으로 각각 난입, 본관 농성장과 학생회관등을 불시 점거하고 건물안에 있던 31명의 학생들을 무더기로 연행, 각종 기물들을 부수고 달아난 것에서 발생했다.

당시 각관 수위실은 사복경찰들에게 장악돼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으며 이날 피해상황은 아직 집계가 안됐다.

이번 사건으로 구립 23일 총학생회장 **김정규**(사학4)군, 신인 동아리연합회장 **김태진**(국문3)군, 이세용(무역3)군, 서예인(수학4)군등 4명이 구속되고 학자위원장 **강병득**(미술3)군 등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나머지 19명은 훈방조치됐다.

이와 관련 구립 22·23일 양일간 '연행학우 구출을 위한 결의대회' 및 '연행학우 구출및 방중투쟁 선포식'이 오후 1시 도서관 앞에서 각각 열렸다.

방학이라는 대중동원의 어려

경주 부총장 선거 무기한 연기 총장선거 무산으로 시기 불투명

경주교수회(회장=姜相賢·한문학)는 구립 13일 오후4시 교수총사무원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구립 19일 실시할 예정이던 경주부총장 선거를 추경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기로 결정했다.

이번 부총장 선거와 관련, 학생들은 "교황선출을 방식으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해 추경이 임명하는 현 제도는 중추력"이

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7대총학생회장 당선자인 백대진(영문3)군은 "1제단 2총장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일보출판문화상 한국불교전서 수상

본교 출판부가 간행한 '韓國 佛敎 全書'가 지난 23일 한국일보사 제정 '제30회 한국출판

文化賞製作賞'에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말까지 1천 6백여년동안 한국인에 의해 쓰여진 불교서적을 집대성한 공로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신년 하례 및 시무식 오는 3일 동국관서

90학년도 '신년하례 및 시무식'이 오는 3일 오전11시 **李**贊勳총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지하1층 교직원식당)에서 열린다.

구지 라이프니츠의 單子論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불교에서는 우주를 말 할 때, 소우주나 대우주나 하여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고 자연을 대우주라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코스모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름답게 배열된 질서를 의미하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 되었다.

다 정연한 질서를 가진 아름다운 우주가 곧 코스모스이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조화와 균형미가 있다는 인식을 굳게 할 수 있다.

山寺의 밤 하늘에 초롱초롱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별들의 모습, 골짜기 다듬어진 여인의 눈썹과 같이 가냘픈 초승달, 보름달, 그믐달에 이

하여 크나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소인배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에서, 가까운 현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세태에는 대학이라는 공동체만이라도 출세수법하여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은 스스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는 내실있는 학풍을 이루어 가며 경영인은 淸明의 의미를 새롭게 할 때 소우주의 운행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불교를 자비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 자비야말로 코스모스이고 참된 자비는 정의라고 본다. 동국대학교여/ 세태에는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崔玄覺

신입생 전기 합격자 발표

총 3천 1백94명, 인문·사범계열 강세보여

90학년도 신입생 총 3천1백24명의 전기 합격자명단이 구립22일 오후3시 발표됐다.

올해 수석합격자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의과대 한의예과에

지원한 문상태(89년 2월 창원고, 총4백85.7점)가 4백32.7점)를 차지했다.

5.91대의 입시경쟁율을 보인 이번 학과고사는 구립15일 본교를 비롯한 명성여중고 이상장별로 일제히 실시됐는데 성적분포는 인문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경쟁률·평균점이 모두 상승해 지난해 인문계 입시와 정반대현상을 보였다.

이번 합격자발표에서는 기존에 발표하지 않았던 추가합격자후보자명단(전원인 5%, 경쟁률은 7%)을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해 있었던 부정임학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한 것으로 보여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입시의 전반적인 수준은 작년과 비슷하며 국·사립사대차별철폐 문교부인용안에 힘입어 사립대의 합격선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입시에서는 상위권 학생의 수가 적어 성적우위 수장학생은 학원생 1명, 해외학생 8명, 동국대학 3명등 총12명(경주캠퍼스전주)에 그쳤다.

한편, 후기전형을 살펴보면 구립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입학원서를 각 수위실 및 배부처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원서접

수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입학고사는 오는 22일에 치르게 된다.

본교산악부 랑탕리등정 세계최초 동계등반 성공

히말라야 설봉에 두 동구름이 우뚝 섰다.

지난해 11월16일 랑탕리(7,239m)봉의 세계최초 동계등정을 위해 출국했던 본교 산악부의 랑탕리등정대 박영석(체고83)대장과 윤태영(산고84), 김형우(부영87)대원 등 3명대장과 윤대원이 구립 9월 해발6천6백50m 제3캠프를 출발, 8시간여의 긴 사투 끝에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침내 정상을 밟았다.

교수등정

▲宋在聖(국민윤리학)=공산권 국가에 대한 실상인식과 교수 및 연구자로 수업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소련에 체류

▲孫宗弼(사회학)=오는 3월 1일부터 8월30일까지 교원교수로 영국으로 출국예정

▲趙昌顯(경영학)=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Univ of New South Wales 방문 및 학술자료 수집자 후보로 출국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및 할인카드 이용회원모집

동국대학교에서는 동국가족의 애교심 함양과 보다 효율적인 후생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를 가맹점으로 하는 「동국인의 집」(Chain)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국인의 집」은 올바른 소비생활 유도로 동국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서로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과 공동체 실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국발전의 새 장을 여는데 있습니다.

동국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국인의 집' 가맹업체 모집

1. 사업개시일: 1990년 3월 2일(예정)
2. 모집기간: 1989년 12월 1일~1990년 1월 15일
3. 신청장소: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가입자격: (1) 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 운영업체 (2) 재학생과 교·직원 및 그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업체
5. 해당지역: 전국대상
6. 가맹업종: 특별히 제한없음(예: 상품판매, 시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등)
7. 등록서류: (1) 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반명합판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부(직계가족업체 등록에 한함)
8. 할인률: 가맹업체 등록시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품목에 대해 할인률 기재

***가맹업체 및 회원 특전사항**

1. 본교 부속병원 및 시설물 이용 할인
2. 전국사찰(조계종) 출입시 할인(협의중)
3. 본교 지정업체 이용시 할인
4.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업 및 취업 알선
5. 가맹업체 수첩제작 배부

'동국인의 집' 할인카드 회원모집

1. 카드 사용일: 1990년 3월 2일(예정)
2. 회원가입기간: 1989. 12. 1~1990. 1. 30(신청서 교부 및 접수)
3. 신청장소: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4. 회원가입자격: (1) 동국대학교(원) 졸업생 및 그 직계가족 (2) 동국대학교(원) 재학생과 교·직원 및 그 직계가족
5. 회원가입방법: (1) 졸업생... 희망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급 (2) 재학생 및 교·직원... 자동적으로 회원이 됨(*직계가족 이용도 가능함)
6. 회원가입서류: (1) 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반명합판 사진 2매
7. 할인범위: 가맹업체 표시품목 및 할인율에 따름

*가입실비: 가맹업체: 30,000원 (입체등록 수첩비, 카드, 우송료, 안내표지 등) 개인회원: 5,000원 (입체등록 수첩비, 카드, 우송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후생복지과로 문의 바람**

서울 중구 필동 3가 26 (02) 267-8131-9 (교) 3555, 3556

'심볼마크' 현상 공모

「동국인의 집」가맹업체 표시용 「심볼마크」를 아래와 같이 현상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 래

1. 작품마감: 1990년 1월 15일까지
2. 접수처: 동국대학교 후생복지과
3. 작품규격: 가맹업체 표시용임을 감안하여 용모자가 적의조절할 것.
4. 작품내용: ① 동국대학교 건학이념 구현 ② 동국인의 萬古成良의지 ③ 동국가족의 협동심과 공동체의식등을 표현하며, 색도는 2도이내로 하여 시각적 효과를 살릴 것.
5. 시상내역: 당선작 1원...총장상패 및 부상(단, 당선작이 없을 때는 가작으로 대신함)
6. 당선작발표: 1990년 2월 10일 이전(개별 통보 및 본교계시판)

동국대학교

학우네의 학생적 여부 평가 기준

학회의 위상과 현실적 과제

자로서의 1차적 요구인 학문의 탐구를 자기활동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조직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학회는 학우대중의 학술적 요구를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이 학생회속에서 조직적 틀로 보강되어 학생회 활동의 대중화와 그에따른 학생회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과 학우들의 학문적 발전을 보장하고 나아가 학문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올바른 세계관을 이념적으로 학습발전시켜 나가는 진리탐구의 장으로서의 자체학문추진과 발전의 실천적 필요성 속에서 제기 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올바른 학회관의 정립

이렇듯 학회사업이 학생회의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회건설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학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학회의 위상을 명확히 해내고 그 실천적 의미를 확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학회가 초창기 시절 학우대중의 자치조직이라기 보다는 '운동권'의 자치조직(정치조직)의 성격이 더 강했다.이 되면서 실제 학회사업에 있어도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학회의 건설이나 대중을 교양시키려고 민주적 소양을 기르는 자주적 대중조직으로 학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운동권조직의 비합법 학습구조로서의 학회를 고집하는 모습이 존재했다. 지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향은 남아있어 과거 다교 학회의 명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사회과학 일반도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학회간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이것

IV. 학회사업에서 제기되는 원칙과 방도

학회 조직이 전혀 미약한 곳은 회계제강화를 위한 학회건설사업을 하여야하고, 어느 정도 학생회의 기반이 서있는 곳은 이러한 기반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부토대로서의 학회의 내용성을 강화시켜내고, 이것이 학우대중에 환원될 수 있는 학회사업을 해야한다. 즉 학회사업의 각자의 발전단계에서 학회의 위상과 내용성을 다르게 적용하여야하며 자치조직으로서 자발성에 근거한 학회조직이 만들어졌을 경우 처음부터 높은 단계의 실천이나 학회강화사업의 업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발전단계에서의 실천을 만들어 주며 자기 내용성이 충실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학우들이 민주적으로 자기의사를 개진하고 공동체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배양해내며, 대중자치조직이 그들에게도 건설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실제 학회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방도를 살펴보자. 첫째, 학회에 대한 전문성과 학술활동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진 주체마련이 필요하다. 학회사업은 학생회의 주요사업으로 모두가 고민하여야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를 담당하고 전문성을 획득해나가는 주체가 있어야만 실제 학회사업을 꾸려낼 수 있다. 또한 개별학회에 대한 지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습사업을 담당하는 주체가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하고, 개별학회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회사업 주체마련에 있어서 전문성 확보에 대

V. 학회사업에서의 학습부의 역할

현재의 학생회계속에서 이러한 주체는 각급단위학습부와 교과과정위원회의 주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학회사업에 대한 관심을 통일시킴을 통해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이들이 현재의 학생회 체계속에서 학우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학생회 강화 기여도 절실히 요구 전문성 확보한 주체 발굴 중요 각 단위 특수성에 걸맞게 건설해야

은 다른 편향으로 학생회속에서의 학회가 아닌 각자의 자신만의 이해에 근거한 학회관 속에서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이러한 폐쇄적 학회관은 학회가 어떻게 학생회 체계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해가야 하는 것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때문이며 이는 한번의 토론이나 선언적 자료집속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회사업의 원칙을 전지해나가면서 이러한 편향의 오류를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는 속에서 대중적 합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속에서만이 가능하다. 이과정은 또한, 모범적 학회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여타 다른 학회를 견인해 내는, 잘못된 학생회관을 전체 학생회사업속에서 고쳐나가는 속에서, 학우들에게 학회의 필요성과 위상에 대해 끊임없이 선전해나가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바로 학회의 정수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 되어야 한다. 개별학회의 주체마련에 있어서 학술적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주체(예, 고학번)의 발굴이 중요하다. 학회의 건설과 유지는 전문성과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학회를 담당할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회가 자기의 전문성 내용성을 충실히 획득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는 개별 학회에서 독자성과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 자기의 목적과 성격을 옹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학회는 학회원들의 구체적 이해에 근거한 자기 내용성을 개별학회의 자기발전체계를 확고히 다지는 속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학회사업주체들은 각 개별 학회가 최소한의 체계를 꾸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학생회체계속에서 자체 생산 구조를 갖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유를 가지고 학회사업에

전용 완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학생회 체계에 뿌리 못내린채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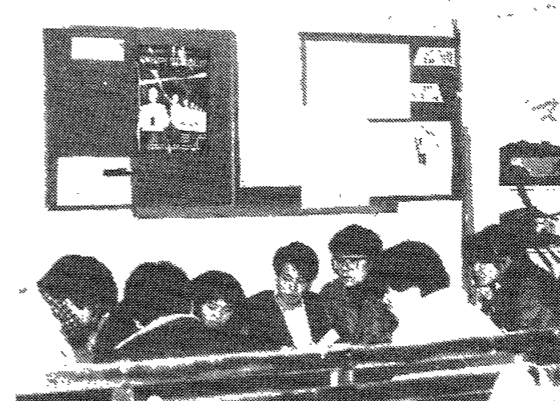
본교의 학회 어디쯤 가고 있나

대학이라면, 누구에게나 학문적 자아실현의 요구가 절실하다. 대학내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가 '학회'라 할 수 있다. 지난 87년부터 본교 일부과에서 자생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학회'성격의 소모임들이 현재까지 올바르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채 난항을 하고있다. 이에따라, 요즘 본교에서는 학회의 지위와 역할 건설과정등에 대해 세를 보는 의사가 되고 있다.

현재, '학회'라는 명칭에 대해 본교생들은 혼란해 하고있다. 많은 학생들은 학회에 대해 "학생회내에서 사회과학세미나를 하고 있는 학습부가 아니냐?", 혹은 "학생회가 학회가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이러한 인식들은 학생회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자치조직'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학생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들의 '극적' 편향과 이에 맞물려 많은 학생들은 학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의 극우적 편향이 대립된채 서로가 자신만의 이해에 근거한 '학회'관, '학회'관을 고집하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교의 경우 학회건설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학회'를 단순히 자아실현을 위해 뜻있는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외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의 구체적 발전단계가 이를 학회가 학회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회만의 이기주의에 빠지는 편향이나 각자의 전공학문에만 관련된 무비판적 커리큘럼의 상징등이다.



이탈된 학회... 학생회 체계내로

제기되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학생회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부족, 자기전공에만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공학회와 더불어 이와 연관된 '과학사', '과학철학'등 진보적인 커리큘럼을 연구할 수 있는 학회의 건설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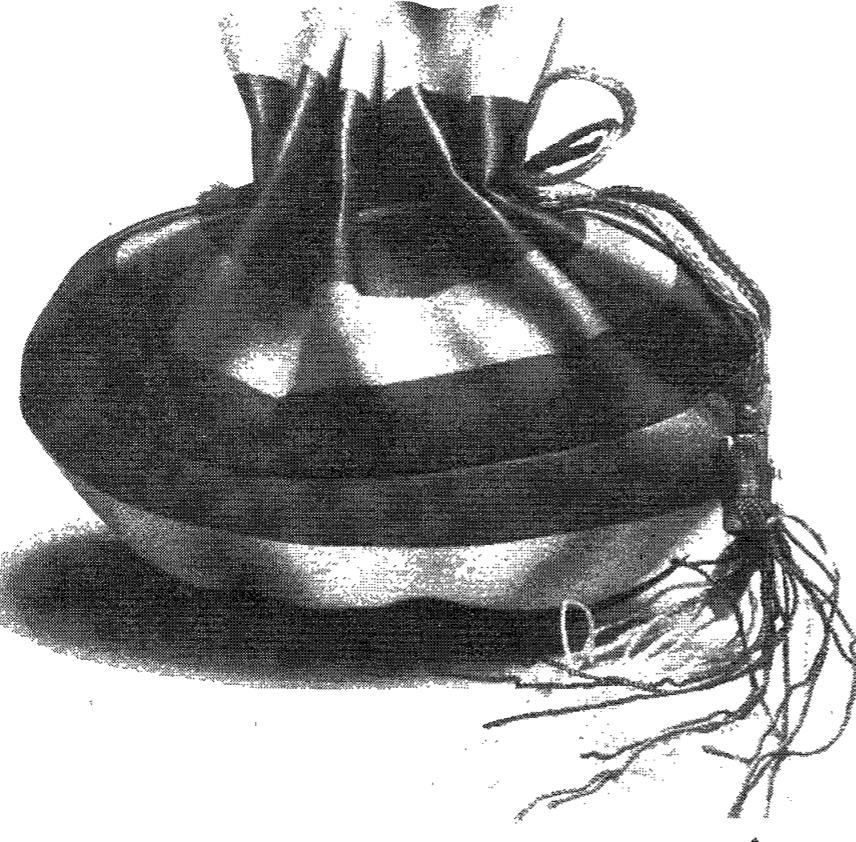
이밖에 국문과와 사회과의 경우에도 학회건설의 단초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회과학대] 현재 사회과학대에서는 학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습부체계로 성원들의 학술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학회건설에 대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정기영(경의·3)군은 "학회는 학생들의 학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회조직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한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전제한다. "학회가 학생회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즉 학회와 학생회의 올바른 관계설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학회장이 운영위원회나 학대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회건설의 경로에 관해서는 "각학과, 단위에서 학회건설준비위를 결성, 소재를 발굴하는 방법과 대학원생과 교환원을 위주로 특정학회를 먼저 만들어내는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학부내에서 학회가 안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 "비록 학회가 건설되더라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 즉 졸업과 임용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기 힘들고, 따라서 학문의 질적발전이 힘들다"며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공과대학] 공과대의 경우, 공대생들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사업주체의 부재로 학회건설이 요원한 실정이다. 건축공학과와 전자계산학과의 경우 소모임 형태로

철학과역 교과등 기본틀 갖춰 사업주체 부재로 난관부딪혀

은 전공학문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사범대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체계내에 있는 교육부(교육문제)와의 유대를 통해 학회 커리큘럼을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교과 학습부 산하에 있고, 학회와 집행부의 일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핵심적으로 구현하는 대중자치조직인 학생회에서 학회의 역할이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회건설 사업이 반드시 세를 구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학생회 체계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난항을 학생회로 수용하고 강화시켜 올바른 학회의 위상을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미도 있다. 또, 학회를 통한 제반사업과의 유기적 연관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진형 기자)

근하신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이 온누리에 그들과 양지가 구별없고 부족함과 넘침이 없이 우리들 소박하고 거짓없는 마음속에 복되고 참된 빛으로 영원히 남아 있게 하소서

알립니다. 포항제철에서는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만화를 공모합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

●참가자격: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규격: 8컷 1페이지 ●내용: (1) 포항제철의 국민기업 이미지 향상 할 수 있는 내용 (2) 포항제철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내용 (3) 직장생활의 단점들 소개하는 내용 (4) 기타 기업과 국민의 화합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내용 (5) 전체적으로 밝고 건전한 해학의 유희가 담긴 내용 ●응모방법: 우편송부 ●당선작수: 12편 ●심금: 편당 10만원 ●발표: 당선작 개별발표 ●공모기간: '89 12 1 ~ '90 2 28 (2월 28일 자 우편소인(봉투)까지 접수) ●보상금: 790-300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포항제철(주) 홍보부 시보담당자 ●기타: (1) 관련 분사 소위 (2) 만화 내용은 필요시 일부 수정가능 (3) 당선작은 회사 시보등에 게재 (4) 응모자는 성명, 주소, 학교, 학과, 연락처 (전화번호) 명기 바람 ●문의처: 포항제철(주) 홍보부 전화: 서울 (02) 758-4263 포항 (0562) 70-0573, 0574

현재 한국경제는 원화절상상으로 말미암은 가격경쟁력의 상실과 주요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시장조건을 결합한 구조적 위기를 갖고 있다. 더구나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 등으로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한 한국경제의 구조가 안고 있는 고질병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도 한국경제가 어떻게 풀릴것인가를 간략하게나마 고찰하는 의미에서 마련하였다.

(편집자)

경제위기가국면 '증폭' 될듯

90년도 한국경제 어떻게 될까

I
우리사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제반문제를 민중의 이익에 입각하여 개혁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은 실천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다. 특히 70년대의 반독재민주투쟁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80년대는 더욱 폭넓고 심도있게 발전하였다. 그것을 변혁론의 차원에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한국자본주의와 국가권력의 성격, 구조적 위기의 규정성 문제, 계급분석, 통일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구체적인 전략, 전술, 조직 문제에 대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정과 성격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충분한 통일과 합의가 되어있다고 할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운동은 제계급계층의 변혁적 의지, 즉 투쟁의 강도가 중요하지만 또 그와는 별도로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에 의해 조성되는 여러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조건들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논쟁, 혹은 사회구성체론, 그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같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당면변혁을 자리매김하고, 그 결과부터 여러 영역과 부문에서 과학적 인식과 실천에 이끌어나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운동은 메시지 조성

된 객관적 정세속에서 부딪히는 장애를 극복·돌파해 넘어서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그럼으로써 민중운동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올바르게 제시하고 대중의 지지와 실천을 불러일으키며, 민중운동의 구심점으로 이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의 전진이 메시지 정세에 총체적으로 작용해 나가고 조성된 계급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면정세의 변화와 계기를 올바르게 읽어야 한다. 더구나 이 중요성은 최근 폭넓게 확대되어가고 있는 대중의 진폭과 활동성이 고양되어가는 상황에서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주의'가 이어서는 안된다. 즉 경제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이러저러한 특수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축적에 관철되는 법칙가운데 제생산구조의 특태의 변화를 추적하고 특수성 가운데 발견되어가는 정세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경제학적 비판의 무기는 전철정이나 학위의 정당으로부터 민중운동의 무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대만이나 일본의 여전히 성장의 지속도 이점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사실자로서 인용되고 있다. 이 문제는 아직은 충분한 해명이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공황의 발현은 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 동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경제상황과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그리고 당면시기의 경제정세의 위기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한면 짚어져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III
최근의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근거의 주요한 지렛대는 원화절상상을 중심으로 한 가격조건의 변화였다. 특히 원화절상상은 달러에 대한 상대적 평가에 힘입어 급속히 상승해나갔는데 이 급속한 상승은 한국경제에 가혹한 고통의 외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곧 88년 중반이후의 한국경제는 재생산구조가 해

의시정과 해외자본에 강고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환율을 중심으로 한 가격조건의 약화는 경제를 위기의 국면으로 내모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을 가격경쟁력의 약화나 국가 의존적 요소로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을 지극히 단순화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 증폭은 경제적 종속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측면을 포함한 총체적 규정이며, 경제적 종속이라는 의미는 외적 가격변수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주로 미국·일본) 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에 내용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원화절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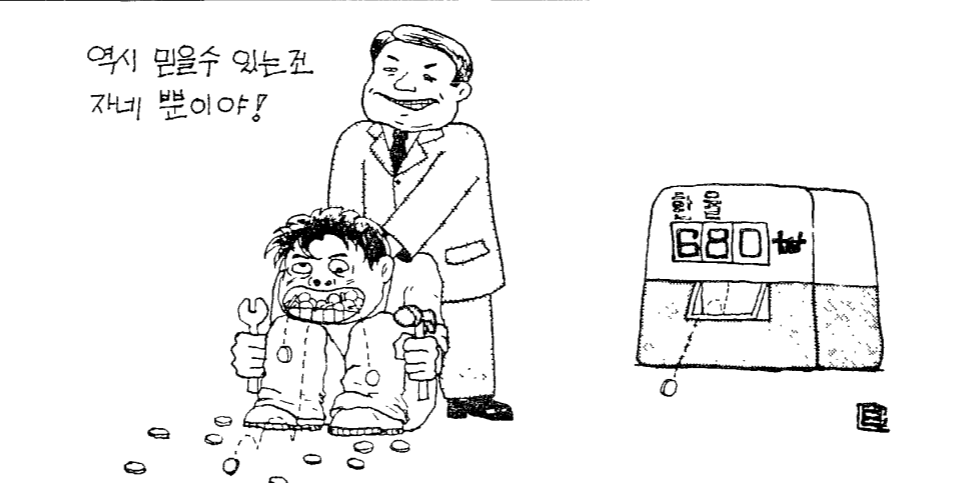
국경제의 종속적구조의 성격을 유념한다면, 최근의 한국경제의 상황은 원화절상상을 포함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세계경제의 순환적 움직임의 관련속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의 수출전진선의 위기는 바로 가격경쟁력의 상실과 주요선진자본주의국가의 시장조건이 결합한 구조적 위기로써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수출위주의 종속적 경제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구조는 이로부터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고 증폭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사실을 덧붙인다면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상품들은 가격경쟁력의 급격한 약화와 함께 개도국들의 경쟁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추락, 구속당하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일본과 대만등의 수출상품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즉 현재의

금융황을 막기위한 무제한의 자금지원으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크게 늘어난 재정지출과 통화증발성 각종 경기부양책과 함께 보다 고단위의 새로운 독점지연정책이 강구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바 현대자본주의의 위기의 형태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선 것이다. 경제위기 속에서 취해지는 정책이 독점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위기로 부터 구해내고 대중과 비독점영역에 그 부담을 전가시켜 나가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를 독립적으로 재편성하고 경제의 자기정신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위기를 구조화시키고 만성화해 한다. 그것이 대중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적 조건과 대외적 생산력과 기술의 저위성, 영여의 재구조적 누출구조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국면의 위기의 정도를 더욱 증폭시켜나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IV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의 위기의 내용과 방향은 정권의 물리적 폭압 통치가 전면화될 객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과 민중간의 긴장과 대립이 보다 분명해 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민중운동에 가해져오는 강고한 탄압과 지배전략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대응은 이시기의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세력의 변화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말한대로 운동은 메시지 조성된 객관적 정세속에서 부딪히는 장애를 극복·돌파하고 대중의 지지와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역관계의 유위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비조직의 정권과 자본의 움직임이 시사하듯이, 탄압은 민족민주운동의 집중력을 파괴시키고 자본의 지배속에 개량화시켜 내면서 대중으로부터 고립화시키기 위한 선진과 탄압이 대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족민주운동의 통일과 단결은 필수적이다. 눈앞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된 노력과 투쟁 없이 운동의 전진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중의 요구에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조직적 구심으로서의 '전민련'의 2기 출범과 90년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노협'의 건설, 그리고 대중들의 생존권 싸움, 대중의 민주적 조직적 진출들이 탄압속에서 공방을 치루어내야 하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더욱 중요하다.

김기철
(민중민주운동연구소·경제분과)



중속구조에 원화절상 겹쳐 난항 예상 정권의 물리적 폭압 전면화 공산 커

적인 문제이고 재생산구조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를 단순한 외적요인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따라서 그만큼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74-75년 세계공황이 오일쇼크로 부터 발생하였다고 인식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것은 내재되고 심화된 모순의 발현이 오일쇼크를 통해서 더욱 격화되었던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접근이 될 것이다.

이로부터 경제동향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기본모순이 재생산구조속에서 관찰되는 경기 순환의 운동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다. '천재가 일단 운동에 투입되면 끊임없이 그 운동을 되풀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지닌 주요한 성격이다. 한국자본주의는 지난 자본주의적 성장을 통해서 자기운동을 전개해 가는 일정한 생

87년-88년은 세계경제가 호황의 국면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경제의 동태는 호황이후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주식시장과 금리의 동요에 시달리고 있음은 여러지표와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기에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와의 관련성, 증속의 구체적 발전해가나름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출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다. 그중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40%이다. 그런데 주요선진자본주의국의 수입은 경기후퇴보다 앞서 사전에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시설재도 독립적 공급상도 아닌 개발도상국의 완충(우리의 경우 주요수출상품)은 상당히 급속히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사실도 지적된 바 있다. ('민주화의 길' 22호, "경기위기를 대비한다" p19-20 참조) 이러한 사실과 한

대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했을때 이는 바로 동국의 현재 모습속에서 파악되며 또 한 Universalism 과 Buchistspirita 는 차별성에서 그 조화는 두드러지게 된다.

이 말은 제2대 총장선거를 위한 서울캠퍼스 홍보활동이 열띤 7일 오후 3시경 홍보장소인 중앙당 연단 앞쪽 오른쪽에 서서 여섯 분의 원로교수님들께 감히 '우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기 어렵다는 한 교수님의 겸손한 절문이었다.

아마도 이번 홍보활동에서 나온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아니었다 싶다.

"총단 지원금 2백억은 반드시 승려출신 총장이어야만 가능하단" "동대총장은 반드시 승려출신이어야 한다"

대학의 혁신을 말하며 발전을 장려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려 출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요 비약이다.

정작 청화유서를 부르는 승려앞에서 땀을 끼얹은 사람은 바로 반재선사였다. 각성해야 한다.

결국 이날 홍보활동은 석탑회 소속 승려들의 "총무원장은 왜 불타이느냐" "총무원장이 내 애비냐"라는 성직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추태를 보여주고 말았고 끝내 특수성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고의 틀 때문에 학생과 맞부딪드려야 할 수 밖에 없었다.

東大가 퇴보의 길을 답습해온 역사가 바로 이기적 당파싸움, 고부한 명분싸움에서 비롯된 특수성을 극복해내지 못한 불교계 스스로의 모습은 아니었나 다시금 생각해 볼 적지 않다.

대학은 역시 Universalism 에 입각한 사상·학문의 다원화와 사회의 통합이다.

이번 홍보활동에서 나타난 바대로 각 후보의 학교발전을 위한 대안이 각각 다르듯이 대학총장이 갖는 지위 및 역할은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불멸이니 피승화하지만 6후보 모두 자진사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직면대표의 마지막 애절한 호소가 또다시 가슴에 와 닿는다.

(이만섭기자)

동서의학의 만남 추구로 의술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동국의료원'

동국한방병원

다양한 진료과목, 대학의 전문의료교수진, 첨단시설을 갖춘 3박자 진료체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협력진료체제를 꾸준히 추구해온 동국의료원- 동국의료원이 건강제일주의의 미래를 꿈꾸면서 서울지역에 한방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東國仁術'은 이미 세워진 경주·포항병원과 더불어 이제 서울에서도 웅비의 나라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동국대학교

재단법인 동국한방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37-13
대표전화(02)536-5599

1. 진료과목·의료진

내과 1	원장 이종형교수	부인과	과장 안공립교수
내과 2	과장 김문곤교수	소아과	
내과 3	과장 안공립교수	침구과	과장 김갑성교수
내과 5		물리요법과	과장 이명중교수

2. 특 설

- 중풍센터 ·척추관절센터 ·동통크리닉 ·체질(알러지·통풍·류마티즘)크리닉 ·성의학크리닉

인간중심 사회건설의 방법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 앙겔스는 '반두링론'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러한(사회적-인용자) 생산력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생산력 자체가 기존의 모순을 지양하도록, 자본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철폐하도록, 즉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점점 더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거대한 규모의 발전은 그것의 소유형태와 점점 더 격렬하게 충돌하게 되며, 이러한 충돌은 오로지 "급진적 생산력이 사회적 본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생산양식, 소유형태, 교양양식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성격과 일치시킬 때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대량으로 국가화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그 자체가 이 변혁을 수행할 방도를 제시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계내에서 이미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 정도가 불거져 사회주의 혁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생산수단이 존재하고 성숙될 때 가능하다. 이것이 사회주의혁명의 물질적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물질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혁명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이해를 위한 제언

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의 확고한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장악'만으로는 부족하며 '여러 경제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 "태세의 저자들이 경제의 분야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중요성에 관하여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주 특징적이다. 그들은 오직 '조직화' 등

플레타리아트의 자신의 정치적 개성을 이용하여 부르조아에게서 점차로 일체의 자본을 빼앗고, 모든 생산도구를 국가의 수중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며, 총 생산력을 가능한 한 빨리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조아적 생산조건에 대한 전체적 철폐를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말해서, 경제적으로는 불충분하고 무리한 듯이 보이지만 발전해 가는 가운데 스스로를 뛰어넘어 가는 사회질서에 대한 더 이상의 철폐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조직, 생산양식을 전면적으로 혁명화하는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조치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생산의 전면적인 사회화, 계획화나 나

자본 국유화 통한 경제 혁명 완전한 사회주의화 환상 깨야

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경제관계에서 노동자들의 독재를 회피하는 소부르조아지도 또한 수용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가라면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에 통제를 가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이 핵심을 그러한 순간에 결코 '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부르조아적 소유형태의 결미기로서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순이 격화된 생산의 사회화의 진전, 더욱 대규모로 사회화된 생산수단(이것은 독립단계의 자본주의에서 이미 자본주의적 독재에 의해 실현되었다)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독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유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경제의 핵심은 시장의 무정부성과 자본간의 무차별한 경쟁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방금 나왔고, 여전히 탄생의 고통이 지속되는 동안인 최후국면의 사회주의"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환상'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시기에는 불가피하게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산수단을 사회전체의 공동재산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불리는)만으로는 생산물이 '수행한 노동의 양에 따라' 분배되는 한 계속하여 지배적으로 남아 있는 '부르조아적 권리'라는 불평등과 분배의 결함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주의혁명(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대해 레닌은 다음 과같이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는 최근의 현대과학의 발전에 기반한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기술업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계획된 국가조직적인 생각할 수 없는데 이 국가조직을 수반한 민중들로 하여금 생산과 분배에서 통일

된 기준을 가장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의 지배가 아니라면 사회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마자 "민중이 일시에 그 어떠한 권리기준도 없이 사회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자본주의의 철폐는 그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전제조건을 즉시로 창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의한 노동과 소비의 기준에 관한 가장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 "대수롭지 않은 소수의 자본가, 자신의 자본가적 습성을 떨쳐버리려 하지 않는 상류계급, 자본주의에 의해 완전히 타락한 노동자들, 기생생활자들, 부자의 자식들, 협잡꾼들과 그 밖의 자본주의적 전통의 수호자들"에 대한 계획과 통제의 확립,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혁명의이다.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화'라는 개념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의 과학상의 차이를 무시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로부터 자발적으로 사회주의사회를 전체적으로 제조하려는 데 있어 프롤레타리아트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으로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소수자적·사적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통해 그것을 사회적 생산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주의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서 '구체적인 현실의 계 조건'에 주목해야 한다. 독립단계의 자본주의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부 부문에서 부르조아적 소유형태로서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출현시켰다. 이러한 생산수단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 즉 사회주의혁명을 요구한다.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자본주의적 독재에 대한 사회주의적 국유화는 따라서 완전히 실현가능하다. 이것은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화'는 결코 아니지만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의 경제적인 형태이다. 자본주의적 독재에 대한 무장된 프롤레타리아국가와 직접적인 장악과 통제, 그것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의 물질적 토대이다. 무장된 프롤레타리아국가에 의한 혁명, 자본가 신디케이트의 국유화를 '완전한 사회주의적 사회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혁명이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또 다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정 주 (자유기고가)

6공명양심수... 5공의 2배

우리는 며칠전 분단의 장벽을 깨뜨리고자 혈혈단신으로 남한학생대표로 제13차평양경제정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차디찬 철창에 갇혀있던 일수경씨가 재판정에서 당당히 진술하는 모습을 보았다. 온갖 모순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

6공명양심수... 5공의 2배

우리는 며칠전 분단의 장벽을 깨뜨리고자 혈혈단신으로 남한학생대표로 제13차평양경제정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차디찬 철창에 갇혀있던 일수경씨가 재판정에서 당당히 진술하는 모습을 보았다. 온갖 모순으로 점철된 이 시대를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노력



◇풀려가는 또 한명의 양심수.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민족의 양심에 맡겨버린 양심수를 적극 후원해야 할 것이다.

다. KINOC 인권위가 신문보도, 가족들의 소식, 산하 지역조직등을 통해 잠정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1월말까지의 시국관련 구속자는 총 1천2백51명으로 아직도 수감 중인 숫자는 7년이상을 복역한 장기수를 포함해 1천5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작년에 구속된 양심수 와 올해 광란의 공안통치를 생각해 보면 그 숫자상으로는 많거나 하는 생각은 여지없이 깨져버린다. 예나하면 앞서말한 1천57명의 대부분이 3월이후 11월까지 집중적으로 구속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실로 하루평균 5명꼴로 양심수가 생겨난 셈인 것이다. 이는 5공시절의 2배, 유신시절의 4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현정권의 본질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수감중인 1천57명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학생이 5백39명, 노동자가 3백95

공안정국 이후 하루 5명꼴 양산 민가협등 월동준비 후원 동분서주

관할법으로 감시하고 사상전향 각서를 강요하는 엄정한 단속의 날인기 기다리는 것이다. 1990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정권논리에 내러의 주인이 깃발하는 시대적 역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관은 고문을 하고서도 1년여나 유유히 돌아다니고 통일을 외치며 국민적식을 고양시키는 사람은 수만의 경찰을 투입해 잡아넣는 참으로 기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우리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잠자던 학생들을 연행 그중 4명을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양심수는 결코 멀리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찌까지 학교에서, 공장에서, 집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몇몇의 책을 소지했다 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하여, 학원지수를 위해 투쟁했다 하여 잡혀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말해도 되나 국민은 말해서는 안되는 지금 이곳은 진정한 '통일농장'인가. (유원준 記者)

Yes, I Can!

■ 대우전자 Hi-Touch Project IV



●자주형 (自走型) 진공 청소기

Yes, I Can!

영어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이 아닙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아도 저 혼자 알아서 끝내주는 혁신적인 진공청소기의 탄생은 알리는 소리입니다.

리모콘만 눌러주면
진진 후진 좌우이동 회전까지!
코드 길이, 관(筒)의 길이 조절도 자유자재!...

스스로 움직인다 해서 자주형 (自走型) 진공청소기 / 대우전자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하이터치 (Hi-Touch), 그 대표적인 결정체 (結晶體) 중의 하나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에 "다 편리하게 살고 싶은" 인간 내면의 욕구들을 투명 (透視),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품들을 탄생시켜가는 하이터치의 세계 / 기술과 정신의 결합을 통해 대우전자가 제시해가는 "인간기준"입니다.

대우전자



'충격' '분노' 그리고 '모색'의 한해

총장·이사장 구속 - 민주적총장선출 무산등 다사다난

△한해동안 일선에서 취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89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총장·이사장구속사건, 민중선거운동, 재단혁신사업등이 진행되었고, 대외적으로는 1학기 광복참가투쟁을 비롯해 전교조 문제, 대학인문관입동의 하인철탈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신 기자들의 남다른 시각이나 대안을 이 자리에서 논했으면 합니다. 우선 학사부의 선결 문제로 등장했던 민중선거운동과 재단 혁신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번 총장선거의 특징으로는 우선 11대총장까지의 재단혁신사업에서 탈피해 교수회에서 22인의 후보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총학생회, 대학원학생회, 직원노조등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무산된 것은 부채 때문입니다. 선거무산은 고대·세종대의 예와 더불어 주체들의 성급한 행동과 시기에만 연연했던 점등을 반성해야 하고, 선거한 달전에야 활동을 시작했던 대학원 학생회에서 어느정도 각성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봅니다. 단지 12월 17일까지 선출해야하는데 강박관념을 갖고 교수회가 독단적으로 선거진행을 함으로써 선거판 자체가 축소되었습니다. 시기에 연연한 것은 학생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했다고 봅니다.

—총장선거는 제도에 대한 문제와 인물에 대한 문제로 나눠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대학의 지도자를 선출하는데 가장 민주적이고 궁극적인 전체학원구성체의 의사수렴을 해본 구조를 마련하지 못했고, 또하나 진행상의 험정은 올바른 인물을 융합해 내지 못해 헌 제처럼 후보사퇴까지 이끌어 온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 입학사건이후 총장과 이사장구속에 따라 가장 신속하게 꾸러진 공동위입니다. 사태수습과 혁신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민중선거 전조기 지로서의 정립은 긍정적 성과물로 생각되지만 후속적인 활동이 지지부진해지고 실상가상으로 학생회에서도 우수현상이 나타난 것은 현실에서 올바른 비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학생회의 민중선거준비 과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수회활동의 경과와 이것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교수회에서 총장선출에 대한 간담회를 학생회와 직접 가진것은 10월에 들어섰고 이전에는 논의가 전무했습니다. 또한 8월31일 총장·이사장구속사건으로 선거자체가 회색화되고 학교의 명예회복에 대한 신장을 크게 부각시키려는 성명서발표도 없었지만 아니라 눈 가리기식의 사태수습을 했습니다. 19차 서울·경주합동대의원회를 열고 후보인선출을 논의한데 이어 10월18일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당시 교수회의 고집으로 학생·직원등

은 총장선거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단순히 의견수렴만이 가능한 방관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즉 교수들만에 의한 독단적인 선거체제를 구축하고 나머지 주체는 홍보활동에 불과한 공회회이나 참석할 수 있게 된거지요.

—총장선출하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과정은 열악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나았다고 봅니다. 사두용미(?)라고나 할까요. 진행상의 오류는 대정부투쟁과 내적으로 교수·직원·학생·동문등의 단합을 가져왔어야 했으나 교수·학생간의 지분 배양기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점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좋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이총장이 제출한 여기에 관심이 모아졌다는 점입니다. 홍보활동등을 통해 다른 후보들이 반이관투쟁을 전개하는 등 일제력으로 결집되었던거지요.

—이총리 이총장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추측도 들립니다. 학생회에서는 일단 합의를 한 상태였기때문에 달리 조처를 취할 수 없었는데, 공무원임상 자격비밀인 이지원총장이 후보로 나섬으로써 학생들이 후보직사퇴 주장할 수 있도록 호기를 제공했습니다.

△부정입학사건은 이지원총장이 제출하는데 결집들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몰적도대미련을 위한 재단활동부추진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러나 학반기에 들어 재단혁신은 학생들의 관심에서 소외되기 시작

했건 이사장의 전면퇴진이라는 재단혁신사업은 고원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사들은 퇴진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해 더욱 난처한 처지입니다.

△재단이 곧 중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년이 본교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이번 총장선거 역시 중년의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교를 조계종에서 세웠지만 조계의 선각적 의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요소로 변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원이 정부나 기타압박된

참여하면서 현실적인 각성과 주체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직원노조의 인적구성성은 참사급 이상의 상층부와 그이하의 의식있는 직원들로 나뉘어 참사급미만의 직원들이 주체적 활동을 꾸려나가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학생과 교수간의 매개 역할을 해준것은 그 좋은 예가 되겠지요.

—직원노조 2기 출범후 공식적 임장은 지금까지 학사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학교의 민주체제로서 능동적인 직원을 수렴해야한다는

종합감사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진행은 사립학교법을 원칙적으로 말살해 학원을 문교부에 귀속시켜 버린 작태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함께 긍정적 사업으로 평가되는 건물·시설확충, 불교전사완공, 학생주도의 상정발전기금모금운동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학원침탈의 경우 전반적인 공안정국의 진행속에서 학원탄압의 전환기적인 시초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총학생회 부추진등의 인적인 침탈뿐만이 아닌 더욱 조직적인 침탈이 예상됩니다.

학과마저 부정입학사건으로 승인된 소멸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된 형편입니다.

건물의 신·증축도 그리 밝은 상황은 아닙니다. 의과대학의동과 법당이 완공되었고 내년 2월이면 여학생기숙사가 세워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족한 시설이 다채한데다 내년2월까지 건립되기로 했던 의과대학부속병원 재단에서 공사비가 조달되지 않아 공사가 지지부진한채 완공일자를 6월까지 늘려잡

의 지도세력이 소멸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괴리된 상태에서 6대총장이 들어서 동떨어진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대총장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캠퍼스의 계경구조나 부속선거운동등이 전혀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6대총장의 인선과정에서 '갈라막기식'의 오류를 범해 집행부내에서 결함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보충하자면 경주총장은 갈라막기식인선으로 총학생회가 무능한 집단부추진과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하는 총으로 인위화되었지요. 분열된 집행부는 당연히 학생대중을 이끌지 못하고 침체일로도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89년에 우리모두가 느꼈던 가장 큰 사회문제로는 광복참가투쟁과 전교조결성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논하기엔 주제가 너무 방대하므로 간략하게 핵심만을 짚으면 합니다.

—광복참가투쟁은 조국통일촉진투쟁의 일환으로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때마다 정부와 미국에서 노골적인 탄압의 무기로 사용한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타파해내는 투쟁으로써 의의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주정당의 방북을 통해 남북학생공동선언문등의 가치화된 성과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해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일반인들에게 고교의 여지를 주었고, 앞으로 진행될 변혁운동에의 대중적 기반으로도 크게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점은 계기적으로 투쟁사업적인 성격을 띠므로써 대중에게 거깝게 다가가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면에서 올해 운동은 학생운동이 침체한 반면에 농민운동이 전교조, 노경상, 노조, 농민집회를 활발히 전개해 이데올로기가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성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하반기에 부정입학사건, 민중선거등에 있어 총학생회와 각단과 대가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학년말에는 단대학생회선거, 과대표선출에만 매몰돼 보다 중요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은 큰 과오로 파악됩니다.

—야간강좌의 전일제실시도 크게 대두되었던 사업의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하반기에는 단대입학선거가 거론돼 중심사업설정이 방향을 잃고 지도부의 분열도 호저부추진되었던 것은 역시 자성이 뒤따라야겠지요.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라는 분위기에 귀속되었던 89년이었고도 생각됩니다. 이런 침체의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다같이 함께 하는 속에서 새로운 동약건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리=서창훈 기자)



의대 강의동 - 경주 상징탑등 시설확충 평축-전교조 결성등 부문운동 활성화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야 할 과제요 재단혁신의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현재 본교에는 재단활동추진위원회, 재단활동추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의지한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던 까닭은 학생들의 주체적 열의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재단 자신의 자각부족때문입니다.

재단구조의 취약성과 인적구조의 취약성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정입학까지 유발시킨 재정문제와 정관규정을 포함한 이사진전원의 인적요소를 개혁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정관은 이사진중 조계종승려가 2/3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등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3인의 이사마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 학생측이나 공대위측에서 재단의 변모를 계속 촉구해 왔으나 이사들은 구체적인 논의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아 재단 활성화의 의지가 엷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유추컨대 학생들이

제로부터 독립해야 하듯이 종단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할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올해 투쟁과정에서 직원노조, 민주노동운동의 활동이 대외에 비해 두드러진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종단에 관해 깊이 얘기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하지만 89년엔 부정입학사건과 총장선거에서 표출되었듯이 조계종에서는 단순한 표지에 있어서는 불교단이라는 것만을 강조했고, 후자에서는 중정이 승려교수가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총장을 지지하는 유시문을 내리는등 신성한 학원에 대해 기반적인 압력을 계속해서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노조는 예외적인 발로이기도 하지만 1기때의 임금교섭을 비롯 경제면에 국한되었던 데에서 탈피해 직원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이결과는 부정입학사건때도 나타났지만 거기에 학교행정의 주체인 직원이 개입되었는데 깊은 지성을 하고 공대위에

다. 또한 총장·이사장구속은 종단 내에서의 파워게임, 반학자투쟁의 율모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공안정국의 학원탄압으로 인한 산물인 것입니다.

—피바다공원은 분단으로 인해 상실한 문화를 되찾고 향일무투를 인식시키는 문화선전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역시 경찰의 침탈로 무산되었지만 그 의의만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년에 발생한 노경성의 본교로 연행도 고교의 여지가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분은 완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캠퍼스는 올해 개교1주년을 맞았지만 개교당시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서울캠퍼스와 동일한 위치에 서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아직은 양적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울캠퍼스와의 관계는 조금도 증하지 못하고 커리큘럼에서 학사행정에서 이르기까지 서울캠퍼스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90년부터 신설키로 했던 몇개

다. 또한 총장·이사장구속은 종단 내에서의 파워게임, 반학자투쟁의 율모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공안정국의 학원탄압으로 인한 산물인 것입니다.

—피바다공원은 분단으로 인해 상실한 문화를 되찾고 향일무투를 인식시키는 문화선전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 역시 경찰의 침탈로 무산되었지만 그 의의만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년에 발생한 노경성의 본교로 연행도 고교의 여지가 절실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부분은 완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캠퍼스는 올해 개교1주년을 맞았지만 개교당시의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서울캠퍼스와 동일한 위치에 서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고 아직은 양적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울캠퍼스와의 관계는 조금도 증하지 못하고 커리큘럼에서 학사행정에서 이르기까지 서울캠퍼스에 종속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90년부터 신설키로 했던 몇개

△올을 또하나의 두드러진 사건은 본교부의 적극적 학원탄압이라고 봅니다. 본교를 비롯해 조 선대, 세종대에 걸쳤던 특별

◇참 석 자

- 정우석 편집장
- 김일취재부장
- 지동철논설부장
- 이종석학술부장
- 김경애문화부장
- 이만섭취재1차장
- 정희윤취재2차장
- 박영란논설차장
- 이진형학술차장
- 유권준특집1차장
- 김영진특집2차장
- 서창훈문화차장
- 유기용기자
- 남철우기자
- 최윤옥기자
- 이형숙기자
- 류수연기자
- 이진호기자
- 남궁은기자
- 김영란기자
- 차옥경기자

◇일시: 12월23일
◇장소: 본사회의실

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상징탑 건립은 지난해 학자투쟁에서 범당이 소멸되자 전학이념구현과 동국총중의 구심을 찾아야한다는 자 각 아래 계획되었는데, 학생들의 힘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사안이라 교수·직원·동문등의 힘을 합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생운동측면에서 올해 경주캠퍼스는 낙제였습니다. 1학기 4월 당시 애국결사대의 포항민정당사태로 많은학생과 집행부가 구속 또는 수배돼 구심체를 잃어 학생들

韓國銀行은 創立 第40週年을 기념하고자 다음과 같이 懸賞論文을 모집합니다.

주제

- ①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에 대응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 ② 한국경제의 성장과 형평의 조화방안
- ③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산업구조조정 방안
- ④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한 금융제도개편 방안
- ⑤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⑥ 경제환경의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1. 응모자격: 전국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응모마감: 1990. 4. 10(화)

3. 집필요령

- 논문분량은 200가 원고지 100매 내의 (10매 내외의 요약본 첨부)
-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르되 정형적 시사점을 포함
- 공동응모도 가능하나 동일인의 복수 응모와 동일논문의 타기관에의 이중 응모는 허용되지 않음

4. 입선작 발표: 1990. 6. 8 (금)

- 개별봉지 및 경제신문(한국, 매일, 서울, 중앙, 내외)에 공고

5. 상 금

- 최우수작(1편): 총재상패, 상금 300만원
- 우수작(2편): 총재상패, 상금 150만원
- 장려상(3~5편): 총재상패, 상금 각 50만원

6. 제출 및 문의처

우편번호 100-79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번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759-4285)

7. 기 타

- 논문 제출시 연차표를 명기하고 재학증명서 1통 첨부
-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입선작의 저작권은 당행에 귀속됨

韓 國 銀 行

포항공과대학 총서 제1호 발간 『醫藥化學』 신약연구의 지침서

국내 신약개발 연구에 획기적 기여할터...

"지난 '87년 7월 1일의 물질특허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기술에 의한 신약의 연구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중요분야를 균형있게 소개한 본 포항공대 총서 제1호의 출간은 국내 신약개발 연구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것입니다." (김호경 포항공대 학장의 추천사 중에서)

저자 소개

- 1957 서울大學校 化學科 卒業
- 1965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理學博士學位 取得
- 1965~1986 Wyeth Laboratories Inc., 研究員
- 1986~現在 浦項工科大学 化學科 教授 兼 職
- 1977~現在 Journal of Heterocyclic Chemistry 편집자문위원 兼 任
- 1988~1989 大韓化學會 醫藥化學分科會 會長 兼 任

주요 목차

의약화학이란 무엇인가 / 신약개발의 어려움 / 신약개발의 과정, 약물 발견에서 치료제가 되기까지 / 신약개발과 발명특허 / 효소 억제 작용을 통한 약물 설계 / 약물대사와 Prodrug / 약물분자의 입체성과 약리효과

신국판/442쪽/값 8,000원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
포항공과대학

東大新聞

광고문의

779-2355

◇공뜨-교원노조 교사의 번민과 학생들의 생각에 귀기울이며

“우리는 더이상 폭독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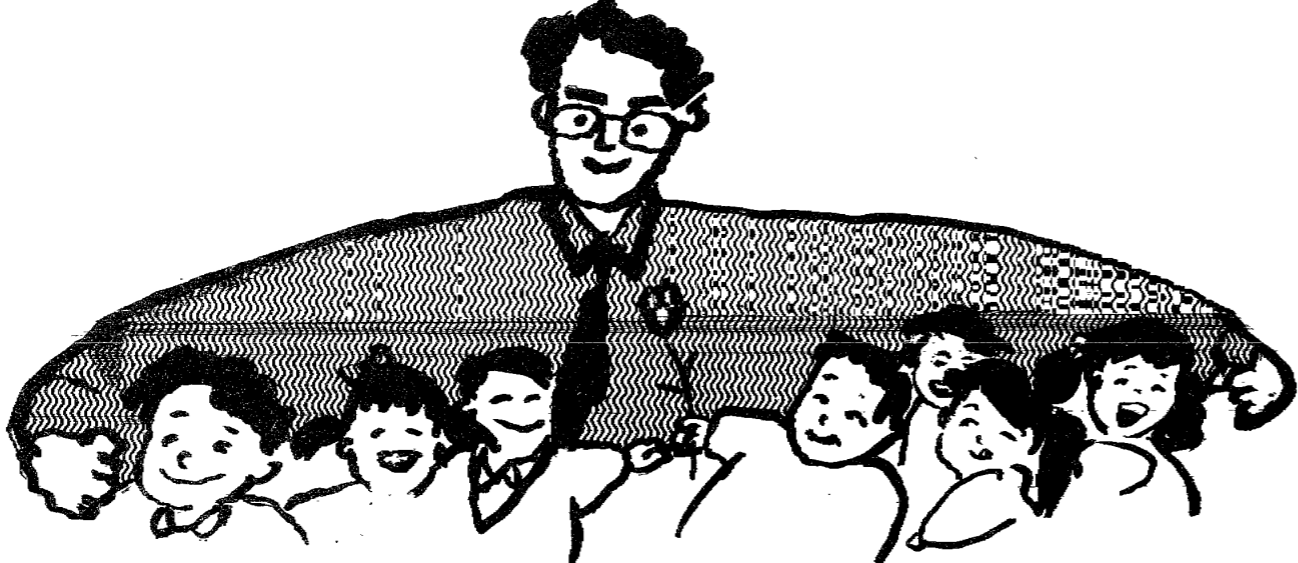
교정은 울컥스름스름이 짙어 있었다. 평상시였다면 1교시 수업은 막 끝낸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밤 동안 잔뜩 울컥스름스름을 들신하게 두들겨 때고 있을 시간이었다. 웅웅그리고 걸던 염규홍 선생은 두 손을 파켜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양쪽 어깨를 지탱하며

엎걸손 때문에 입시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수선을 내내까지 연장하겠다는 의돈 대해 워낙 말이

그때 염규홍 선생은 그의 반 수업중이었다. 교실에서 책을 읽다 그는 교장이 유리창을 똑똑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그 것은 간혹 있었던 일이었다. 그는 교실 순시중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본 즉시 해당 교사를 불러 수정할 것을 요구 하곤 했던 것이다. 교실에서

3학년인 듯한 학생들 몇이 고개를 숙어 보이고 그를 앞질러 갔다. 전기가 자신없는 학생들은 벌써 후기 대학교 경쟁을 떠나 학적권을 알아보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는 본관으로 통하는 길을 버리고 문에반이 있는 건물로 통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작년 그가 담임이었던 반 아이들 쓴 글들이었다. “..... 선생님은 왜 우리와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든 글들을 때어 내셨어요? 평소에도 쳐다보지도 않았던 글들이었는데 쓰레기장 어



뒤로 제졌다 왔다. 그 바람에 빠져나갈 뻔했던 원고봉투를 추스려 그는 왼쪽 겨드랑이 깊숙히 찔렀다. “염선생! 이거 꼭 실어야겠어요?” 그에게 일학년 학급문집 때문에 교장실에 갔을 때 김 교장이 원고봉투를 염규홍 선생 쪽으로 쾅개쳐며 내뱉은 소리였다. “예?”

집히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대체 될 거라고 그녀는 표정을 지으며 그는 교장이 내린 원고봉투에 시선을 떨쳐뜨렸다. 먼저 (원시) 이란 항목과 (선생님) 제목이

그가 나오자 마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교장은 대뜸 물었다. “저 글은 염 선생께서 직접 지으신 거요?” 그는 창녀며 글들을 툭툭으로 가리키며 그렇게 물었다. 창 녀며진 (진실한 우리, 민주적인 교실, 정의로운 학교) 라는 글들이 짧은 액자 안에서

정맥구 선생이 생각하신 2학년, 이에 3학년까지 문장을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자며 우선 1학년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함께 애써보라고 했을 때만해도 그는 회의적이었다. 과연 그렇게 될까하는 반론이

디엔가 버려져있을 그 글들이 가끔 생각난다... “..... 때때로 복도 쪽 유리창을 꿰뚫고 들어온 교장-교감 선생님의 씩씩한 눈빛이 눈앞에 파주치고나서 선생님이 소스라치며 고개를 움츠릴 때 마다, 우리들이 만들어 낸 글들이 선생님 손으로 내려지고 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글들이 교단에서 으뜸권을 지를 때마다, 인형극처럼 되풀이 되는 연구 수업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의

5만 호전자가 지난 7월 명동성당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정맥구 선생에게 써 보냈던 글이었다.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젠 싸우겠습니다. 애들이 가르칠 권리를 주는 한...” 진실한 우리-민주적인 교실-정의로운 학교로

성급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기만하는 헛내기처럼 수줍어하고 있을 수단은 없었다.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이제야 내가 왜 이 글이 교원노조 회원장인 정맥구 선생에게 보냈던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규홍 선생은 단지

달하나 千江에 思考의 광장



洪榮伯 (문과대교수-시양사)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된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시간의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의 흐름속에 얼어붙은 공간이 있다. 책과 종이쪽지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내 연구실이

그 바람을 가듯기엔 위험이 있다는 열려 있다. 오늘날 지나치게 고전적인 대학에 대한 개념인지는 몰라도, 대학은 ‘이제 상이타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여당속에 흔들리고 있다. Eugene V. Rostow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기본적인 연구는 그 원인이 살아있는 경험의 흐름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거리를 두고 음미되어야 하며 뛰어난 제논의 프리즘을 통하여 여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은 비로소 심층의 진리를 파헤칠 수 있고, 진정한 대학의 사회적 봉사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기를 마감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하듯 성적표를 제출하는 일이다. 이리 저리 팔을 뻗었다. 창녀며 정각원의 자봉위에 흰 눈이 내린다. 난로의 훈기는 한 겨울 눈은 날의 아늑함을 더 하지만, 그럴수록 지난 한 학기동안 대학에서 있었던 열면 주강사의 당부 되새기게 한다. 학문에 대한 그러한 ‘지성을 자랑하는 일과 이성에만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는 것이라 하겠다. 학문의 자유는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한 진리를 가르칠 교수의 지적 자유이겠으나, “평정히 명백하게, 평정히 훌륭하게, 평정히 보편적으로”의 지향할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학인의 결여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동서를 막론하고 보다 훌륭한 제자를 얻는다는 것은 학인으로서 최대의 행복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보다 훌륭한 제자란 대학의 존재이유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학문의 창의적 반추에 있어 젊은 세대와 구 세대를 결속시킴으로써, 지식과 삶의 회열 사이의 관련을 유지하는데 대학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본다. 실로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몇년사이 우리의 대학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존재의 이유가 회의적이었다. 일부의 젊은 세대는 구세대와의 ‘학문의 창의적 반추’에 등을 찼고, 구세대의 세대적 역할을 반신반의했다. 사제간의 대화는 위협적 표정을 높였고, 한국적인 사제간의 애정마저 비틀거렸다. 여기에 기성세대의 반성도 필요한 것이지만, 젊은 세대 역시 대학 기능의 본질문제에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겠다.

대학강단 생활을 막 시작할 때, 은사님들의 말씀이 세월을 거슬러 다가 왔다. 학문에 대하여 결하여라 하는 것. 교수직이란 경제적으로 넉넉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지만 대학이 주는 봉급에 최대한으로 감사하라는 당부, 그리고 사제간의 단결되지 않는 대화와 애정이 그것들이다. 오늘날의 대학의 세태는 지난날의 은사님의 당부를 되새기게 한다. 학문에 대한 그러한 ‘지성을 자랑하는 일과 이성에만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는 것이라 하겠다. 학문의 자유는 자기가 관찰하고 연구한 진리를 가르칠 교수의 지적 자유이겠으나, “평정히 명백하게, 평정히 훌륭하게, 평정히 보편적으로”의 지향할 가능한 지양하는 것이 학인의 결여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어쨌든 명백한 사실은 사회는 자유로운 마음과 철학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대학의 생명은 ‘열린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사고’에 있다는 것이다. “대학이 제공하는 경제조건에 최대한으로 감사하라”는 당부는 보다 나은 보수가 바랄 적지 않다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한 감사의 생각을 잃음에, 상이타의 율타디 넘어

백 하나 해야겠습니까” 정 선생 역시 그가 취한 만큼 취해있었다. “그때 기회만 있으면 학교를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교장의 폭주카시 노릇이 신물이 났던 거죠. 예 지치기도 했

명령이란게 있다면, 그게 가르칠 권리가 있고 의무라면 그런 게 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개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문에반은 썰렁했다. 아이들이 오려면 아직도 삼십여분이 나 더 지나야했다. 이제 그들은 교장이 허가해준 원고들만 문집으로 묶어내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제 그가 교장의 결정을 그들한테 전했을 때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그들을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싶었다. 교장이 허가하지 않은 글들은 그들의 글이었고 그들의 아이러니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교장의 결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때? 그때 선생님이 가시고 난 뒤 다시 결정할 건데... 우리들이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안된다는 거요. 그리고 원고도 따로 만들어 냈습니다.”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그때?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리 와서 이 원고들을 본래 제자리에 끼워넣어주세요.”

금관의 예수 삼일로창고극장에서는 극단 로얄씨어터의 「금관의 예수」를 오는 10일까지 4시, 7시에 상연한다. (문의는 756-5467)

국제현대판화전 세계판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현대판화전은 오는 7일까지 무악역 현대미술관에서 열린다.

공권력 학원침탈 의문점 너무 많다 지난 9월 초 피바다공연을 빌미로 정부는 신성한 학원에 군 화발을 들어 놓았던 기억이 새 아물기도 전에 경찰은 우리의 동아에 다시 한번 학원침탈을 자행하였다.

유기철 (농과대 입학과) 학생장난 지나쳐 며칠전 갑자기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해 시골집으로 전화 를 해 주민등록등본을 부쳐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주소가 없어 마칠 학교로 부쳐 주게 되었다.

박영관 (사범대 국과과) 부업 이래서야 방학이 시작되자 아르바이트 를 신청한 학생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연일 부업을 찾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여기서 일부 목지적인 학우들의 행동이 같은 학생들

남상현 (농과대 농업경제) 요원한 민중선거 구말 10일은 동국의 역사에 쓰여지리라 기대 확을 그는 날이었다. “민주중선출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지난 여름부터 정기선거 투쟁에서 마칠 내 일은 결과로 모든 동국인들의 기대를 하나로 모아지게 했던 대서(大勢)였다.

백종규 (사회대 사회학과) 제21대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는 제3기 자문판패기, 독사기 학생관리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학생복지위원회의 복지동국 건설사업에 함께 할 학우를 기다립니다.

달모전의 지평전 '1990년 달모전의 지평전'이 오는 16일까지 백송화관에서 전시된다.

구보타 '대중국전' 일본의 사진작가 구보타 히로시의 중국사진 작품전 '대중국전'이 오는 7일까지 신세계 백화점 본점 미술관에서 열린다.

임덕규등문 인도등지등 순방 林德圭前의원 (법학출·원간) 더플로머시(誌)는 구립26일 인도, 소리랑카, 태국정부의 초청을 받아 인도등 3국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농활의 적극 참여 동계농활에 참여할것을 주장 하면서 몇가지 조건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농민, 노동자를 들 수 있는데 대학생활중에 이들과 함께 생활할수 있는 그나마 합법적 공간은 농촌활동반일 것이다.

서울 홍보활동 도중 승려·학생 끝내 총돌

구립6·7일 경주·서울에서 각각 개최된 '홍보활동'은 예상했던 바대로 **李智冠** 후보의 자기변명과 타후보들의 추후보 비판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학교발전을 위한 낙관적 공약도 쏟아져 나왔으며 본교의 현주소를 어필해 보여준 점이 있다 볼 수 있다.

본교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제12대 총장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은 후보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선관위뿐만 아니라 전통국인에게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적 총장선거가 어원인가

◆...서울 캠퍼스 홍보활동은 구립7일 오후1시 중앙광장에서 한껏 달아오르는 호기심과 더불어 6명후보의 소견발표로 먼저 진행됐다.

먼저 기호4번 **李智冠**(영문학) 후보는 "스님이 되어서라도 재단지원금 2백여원을 확보하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복수를 자이냈으며, 기호1번 **李智冠**(선학) 후보는 "교원을 구제하는 것이 불도이며 나 또한 학생구제를 위해 총장후보로 제출하 하겠다"고 발표.

取材 蒞穡

◆...후보와 각주체 대표의 질의 응답에서 **金益基**(사회학) 교수가 "Universalism에 입각한 대학의 보편성과 중립학교라는 특수성과의 밸런스를 어떻게 이뤘는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기호4번 **李智冠** 후보에게 던지자 **李智冠**는 다시 한번 이 말을 물어보려는 "대학의 보편성과 중립학교로서의 특수성은 함께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정입학으로 불구속기소중인 **李智冠** 후보가 총장으로 다시 선출된다 할지라도 사회적 질타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호1번 **李智冠**(선학) 후보에 관한 질문을 **李智冠**는 "6공화국에 들어서면

서 개정된 헌법의-형사피고인은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한다-원칙에 입각, 하등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

◆...**朴庚圭**(경영학) 교수가

"장미빛 공약보다 구체적인 실천의 방도에 관해"기호3번 **朱宗植**(농업경제학) 교수에게 묻자 **朱宗植**은 "취임 2년후에 중간평가를 받겠다"며 뜻있는 발언을 하였다.

한편 **李智冠**·**李智冠** 두 후보는 **朱宗植**등 4명후보와는 달리 중간 평가를 거부하고 나서 **兩理論**이 대립.

◆...교수들의 자와는 달리 학생들의 3인은 선거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를 들고 나와 젊은 자성인다운 날카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자는 우선 **李智冠**의 교원인용상 부적절한 단서조항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李智冠**의 자격심사요건을 선관위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徐根根**원위원장은 "선관위의 후보 자격요건은 본교10년이상 재직교수에 한한다

여론 환기... 각 후보간의 공방전 치열 '공청회'의 내용적 기능 담보 아쉬워

는 형식적 권한"만을 고집, 방정석 자유를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자는 "사전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여부에 논란이 되고있는 후보의 후보자 승인을 했던 점" "교원공무원법상 기소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텐데"라는 물음에 "선관위 권한 배이다" "회의를 지연시키는 언행을 일체 중지하고 정당한 해달라"는 등의 진행으로 시종 일관 빈축을 사기도.

◆...총학생회장 **김성규**(사학4)군이 **李智冠**후보에 관한 학력부문에 관한 질의에서 "해인사에 출가한 나이가 15세인데 그렇다면 환일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총장은 비행기 타고 고등학교를 다녔는지요"라고 묻고 이어 학자위원장 **강병득**(미술8)군이 "제임시 임직이라던 경주 경주의 동이 잘못된 위치선정과 부실 건축 때문인데 이것이 어찌 임직이라 말하겠느냐"라고 제정의 하자 **李智冠**이 "도이 분기, '정당하게 발언'이라는 고성과 함께 기다려달라"는 뜻이 주위의 승려들이 언단위로 올라와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 험악해졌다.

◆...이어 **김윤길**(기회학)교수의

조부위원장인 언단에 올라와 오늘과 같은 마찰은 예측된 상황이었으며 "후보 모두 이번 선거에서 사퇴해줄것"을 권고하며 장내를 빠져나갔다. 때마침 6명후보 모두 열문을 통해 나가는데 이들 후보의 뒷모습을 보며 씩씩한 여운을 남길 수 없었다.

◆...경주캠퍼스 홍보활동은 구립6일 오후1시부터 원효관소강당에서 뜨거운 분위기 아래서도 무사히 마쳐졌다.

홍보활동전부터 소강당앞에서 1백여명의 학생들의 모여 구조를 의지하는 등 파열된 분위기가 계속되어 각 후보들의 소견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홍보물에 기초해 연설을 했으나 **朱宗植** 후보는 "중단이 특정인을 지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와 교원에 대

여론 환기... 각 후보간의 공방전 치열 '공청회'의 내용적 기능 담보 아쉬워

한 침해"라고 밝히고 "李智冠"총장은 선거후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사퇴하고, 재단에서 1천원 원정도를 전입시킨 뒤 4년후쯤

히 끝났다는데만 의의를 돌릴 홍보활동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평했다.

(取材部)

제출마하던 만장일치로 당선될 것"이라고 **李智冠**후보에 대한 발언을 해 잠시 장내는 "인신공격마라" "내려가라"라는 고탈소리와 지지를 표하는 박수소리로 소란스러웠다.

◆...이어 진행된 질의에서의 **李智冠**(전산학) 교수의 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후보들은 기초 순대로 전입금미반 후원회구성과 의대오양원전립, 제단·동장회의 재원확보, 한의과대부속병원의 독립재산제외의 유지방안, 한의대확보, 한방병원서울유지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생대표로 나온 학회연합회장 **오규석**(한외예)군은 **李智冠**후보에게 부정입학관련 사건과 후보출마결격사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 **李智冠**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주홍보활동은 단순히 무사

여론 환기... 각 후보간의 공방전 치열 '공청회'의 내용적 기능 담보 아쉬워

한 침해"라고 밝히고 "李智冠"총장은 선거후의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총장선거에서는 사퇴하고, 재단에서 1천원 원정도를 전입시킨 뒤 4년후쯤

히 끝났다는데만 의의를 돌릴 홍보활동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평했다.

(取材部)

학원침탈, 민중운동 탄압

총학생회장등 학생회 간부 4명 구속입건

구립 22일 새벽의 중부서 소속 사복경찰 학내무단단입및 농성학생 불법연행사건은 6공회국 출범 이후 89년 하반기부터 자행되어온 공안정국의 말초적 학원침탈이란 부분의 예도 12일 총장실 정거농성 이후 지 급까지 71일째)과 관련된 업무 방해의 혐의가 추가됨으로서 학교측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학생회 측의 자체 분석에서 의구심은 더해졌다.

물론 학생회 체제의 수권능력이 이양되는 겨울방학을 틈타 각 캠퍼스에 대한 대대적인

8명이 불구속 입건된 이번 사건은 학자투 주도 핵심인물의 대량 검거라는 측면 외에도 이를 외에 나머지 학생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마공안관련 및 정거농성(지난해 10월 12일 총장실 정거농성 이후 지 급까지 71일째)과 관련된 업무 방해의 혐의가 추가됨으로서 학교측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학생회 측의 자체 분석에서 의구심은 더해졌다.

물론 학생회 체제의 수권능력이 이양되는 겨울방학을 틈타 각 캠퍼스에 대한 대대적인

질조차 차지 못하고 있던 이번 제12대 총장선거에 세를쓸 수 있게끔 하여 학생들을 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재단이사회의 경우, 현재 황이사장이 구속기소되어 수감된 상태에서 문교부에 재단이사회의 소집을 승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총장선거만료일은 17일 이전에 총장선거와 관련한 획기적 대안이 나오리라는 전망 또한 미비한 상태에서 이번 **李智冠**의 사퇴는 교수회의 총장직선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결과일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이는 방학에 들어감으로써 교수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다는 점과 선관위 또한 구립13일로 자진 해산했으며 총장선거를 담당할 실질적주체가 없다는 객관적 상황에서 이번 **李智冠**의 돌연사퇴는 위기의 기구가 존속하는지의 여부를 떠나 시가지 사건의 연계를 갖기 어렵지 않느냐는 재단 이사회의 여론이 신빙성있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들 뒷받침하듯 일각에서는 정부의 운동권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었다 할지라도 본교가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李智冠** 나름대로의 계산에 의한 재단의 결의를 추종하는 결단이 아니었느냐는 의견이 초심스럽게 대두되고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李智冠**은 "더이상 학내가 시끄러운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번에 경합해보니 선거는 역시 정치판에서나 필요한 것이다" "총장직선은 교수사회에서 불필요하다"라는 발언 내용에서도 객관적총장직선제는 정말로 본교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요건임에 틀림없다.

(이민섭기자)

해설

탄압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독 본교에 한하게 된것에 대해서는 본교가 갖는 특수성을 살펴볼때 가능하다. 분석이다.

이는 첫째로 지난해부터 학원지주화투쟁이 여타대학보다 잘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로 민주적 방식에 의거한 총장선거를 치루기위한 진통이 극심했던 대학이라는 점, 그리고 위의 기본적 원칙에 입각해 자주화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는 진행형의 대학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본교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볼때 사건발생 다음날인 구립23일자 동아일보 석간12면의 "재출마후보 사퇴한 **李智冠**"인사부기사와, 24일자 세계일보 15면 우측하단의 1단기사 내용이 각각 **李智冠**의 후보직 사퇴사태내용을 담고 있어 구립 10일의 총장선거무산 이후 벌어진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

다 파소정권은 잠들어버리고 민중이 깨어나는 시대가 열릴지 부처님께 비나이다.

住依食이 해결돼야

◆...은방글에서는 정부의 물가상승을 한자리숫자유지 정책을 무력케 하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이는 은방글주위의 선진동등 하숙주취중의 방글이 매년 5만원정도 오르고 있어 타지방 학생들이 많은 이리



구립10일 이지관장을 재추대하려는 스님들과 '부정비리' 책임을 지관스님 재임 결사반대를 외치는 학생들이 물싸움을 벌였다. 대승적 견지에서 진행 고뇌하며 책임감있게 동의를 생각하는 것은 누구인가. (글=지동철기자 사진=유기용기자)

동국인의 밤 성황리 개최

총 동창회, 1백억 기금 모금 정식 제안

'제18회 동국인의 밤' 행사가 총동창회주최로 구립 12일 오후7시부터 **鄭在哲**(정치·52학) 회장, **李智冠**총장 **朴玄樞**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 5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소피텔 엘베서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鄭在哲**은 식사를 통해 "모교의 부정입학사건은 재정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지금 추진중인 동창회의 1백억 원 모금 운동으로 동국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민족사학의 자긍심을 되찾고야 말겠다"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동국문학상

사상에서 한국불교 1천6백년 을 정리한 '한국불교전서 10권'을 완간한 **공로로**, **李智冠**총장이 대상상을 차지했다.

장학금 3억여원 증가

경주 캠퍼스 장학과에서는 '89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을 수혜자 1천9백10명, 지급액 5억2천5백34만2천2백원으로 집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교내 장학금 1천6백83명에 지급액 4억5천

속보이는 총생구제

◆...총생을 구제하는 것이 불도이며 또한 총생구제를 위해 총장후보로 제출하게 됐다.

구립 7일 제12대 총장선거를 위한 '홍보활동'에서 출사표를 던진 **李智冠**후보는 이와 같이 총생구제의 길을 걸기로 한 의지를 밝힌 후 다시 구립 23일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후보사퇴 뜻을

중생구제 위해 총장 후보 출마와 사퇴 "조변석개"

밝혀 전통국인의 관습을 모으는 데 또다시 성공.

선관위에는 통보하지 않고 '후입총정도 스님이 해야 한다'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총장직선은 교수사회에 불필요한 파벌간조정할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져 '재단선입에 의한

속보이는 총생구제

李智冠 재등용 구도가 엮보이는 듯하다는 해석이 분분.

흔한 겨울 바람

◆...경장의 폭력적인 학원침탈, 연일 계속되는 사건등

속보이는 총생구제

보는 것 같이 회전문대우도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민중의 시대 기원

◆...1만 동학 잠들었을때

속보이는 총생구제

다 파소정권은 잠들어버리고 민중이 깨어나는 시대가 열릴지 부처님께 비나이다.

住依食이 해결돼야

◆...은방글에서는 정부의 물가상승을 한자리숫자유지 정책을 무력케 하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이는 은방글주위의 선진동등 하숙주취중의 방글이 매년 5만원정도 오르고 있어 타지방 학생들이 많은 이리

친구 보게나 !

80년대를 마감했던 기사년도 몇조각의 후예들을 남긴채 새로운 시간 속으로 사라졌네. 어느때 보다도 지난 한 해는 내게 큰 의미를 주고 떠났네.

작년초에 대학신문발전에 뜻을 같이했던 사람들이 모여 대학신문공고를 대행하는 **나래기획**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었네. 나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아직 매체대행사의 위상이 미약하다는 생각에 이에 공헌해 보겠다는 의지로 뛰어들었네.

불충분한 경험과 자료에 의존하면서 훨씬 크고 강한 회사들과 경쟁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일을 했네.

처음에는 열두명의 가족이 하나로 뭉쳐 나타내는 의지와 열정을 색안경 속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많았었네. 전혀 새로운 의지들을 창출해 내었으니 신입생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해보았네. 그리고는 옳은 것을 추구하겠다는 삶의 자세가 심히 애국될 수도 있다는 현실일에서 우리는 성실과 진실로 맞서고자 했으며 자성과 자기위신을 거듭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견조해질 수 있었지.

일을 시작하던 당시 한 광고주로부터 "처음엔 다들 이상도 좋았고 뜻도 좋았다. 그러다가 점차 변질되더라. 너희도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애정어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네. 항상 그래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재다질하면서 우리는 오늘날도 정열을 불사르고 있다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꾀하고 광고대행의 전문화를 통하여 건강한 대학문화의 정달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었네. 그래서 이제는 웃밋은 여자가 웃음을 띠거나 어느정 잘자리를 틀어주는 내는 광고, 외설을 여자의 전부인 양 너스레를 떠는 광고며워가 강히 대학신문을 기웃거릴 수는 없게 되었네.

당연지사 이러한 광고사업의 이윤이 정사속으로 채워지지 보다는 더 좋은 대학신문을 만들고 대학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쓰여져야 할 것일세. 그래서 우리는 독자들이 바라는 내용이 뒷받침될 수 있게끔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구비한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네.

또한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기사로서의 자질과 신문제작에 도움이 되는 실용마당을 준비하고 있다네. 이밖에도 해야 할 일, 하고있을 일도 많지만 내전 몇타디의 팔로 다 표현해 낼 재주가 없으니 단지 이러한 의지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을 밝혀두세.

일을 진행해오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격려의 손길이 힘을 주었고 애정에 찬 시선이 우리들이 되기도 했네.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멀고 험하기 그지없네. 그렇지만 막 가야만 할 길이 아닌가?

저는 내가 힘들다고 느낄때는 언제나 다정한 무엇으로써 나를 북돋아 주었었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저의 뜨거운 애정과 마음깊은 충고를 기다리고 있다네.

내 이야기만 쓰다보니 인사가 늦었네. 지난 한해 삶에 충신했는지? 세상에 거는 기대는? 최광시절의 그 눈부신 이상을 향해 여전히 고민하는 불꽃을 아저지 않겠나?...공감한 점이 많았어.

자네에게 뜻을 둔 즐거움이 크다면, 세해 복 많이 받게나.

1990. 1. 1.
자네의 친애하는 벗으로부러

추신: 그동안 서강학보, 외대학보, 동대신문의 광고를 대행해 왔는데 이번에 부대신문(부산대)의 광고도 대행권을 위임받았네.

"나래기획은 대학과 대학신문을 가장 잘 아는 광고대행사입니다."

